

한국 고대 불교고고학의 현황

신창수 || 거래문화유산연구원

1. 발굴조사

황룡사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 진흥왕 14년(A.D.553)에 창건이 시작되어 늦어도 진흥왕 30년(A.D.569)에는 가람의 건립이 일단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후의 기록을 보면 진흥왕 35년(A.D.574)에 황룡사의 장육상이 주성되고, 이어서 10년 후인 진평왕 6년(A.D.584)에는 장육상이 안치될 금당이 다시 조성되는데, 이 때 동·서금당이 함께 조성되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된 삼금당이 완성되게 된다. 이어서 선덕여왕 14년(A.D.645)에 황룡사의 구층목탑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완전한 모습의 가람으로 완성되었다.

그 후 경덕왕 13년(A.D.754)에는 황룡사의 대종이 주성되고 종루와 경루가 추가로 건립되면서 가람에 변화가 있었던 보이며, 고려 예종 원년(A.D.1105)에는 상서 김한충을 파견하여 황룡사를 낙성케 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황룡사는 국가 주도로 대대적인 수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황룡사의 9층목탑은 지진이나 화재로 인해 모두 6차에 걸쳐 중수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어 목탑의 중수에 따른 다른 건물들의 부분적인 중수도 함께 뒤따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황룡사의 가람은 창건에서부터 폐사될 때까지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기록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라시대에 창건되어 고려시대까지 두 왕조를 거치면서 호국 사찰로 숭앙받아오던 황룡사는 고려 고종 16년(A.D.1238) 몽고의 병란에 의해 소실되어 700여년을 이어왔던 법당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재건되지 못하고 사역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민가의 대지나 전답으로 이용되면서 그 유지만이 남아 있게 되었고, 발굴조사 전까지 사지 중심부와 주변으로는 100 여호의 민가가 자리잡고 있어 오랜 기간 지내오면서 사지에 남아 있던 석재들은 흩어지고 사역내의 건물자리도 민가의 건축과 경작으로 인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황룡사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일본인 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문헌조사와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일본 학자 후지시마 가이지로(藤島亥治郎: 당시 경성공업전문학교 교수)는 1927년부터 2차에 걸친 황룡사지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1930년 조선건축사론이라는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황룡사 가람의 추정 배치도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이 후 황룡사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93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유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령이 공포되어 그동안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436점의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황룡사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아왔다. 그 후 황룡사지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962년 1월 21일 당시 문교부에서 일제강점기에 지정한 조선고적유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사적 제6호로 지정되어 사역 전체가 보전되기는 하였으나 민가와 경작으로 인한 유구의 훼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1964년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으로 목탑지 심초석 위에 자리 잡고 있던 민가가 철거되고 목탑지의 심초석과 상면의 방형대석이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같은 해 12월 17일 심야에 심초석의 사리장엄구 모두가 도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관계 당국에 의해서 사리장엄구의 일부가 회수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훼손된 자료는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되었다.

1969년에 들어와서 부분적으로나마 황룡사지에 대한 발굴조사계획이 수립되어 문화재관리국과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사지 북쪽 지역의 강당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일부 유구만을 확인하고 1차 조사로 중단되었다. 이는 황룡사지와 같은 대규모의 사찰유적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과 국가적인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여 황룡사지도 이 정책의 일환으로 사역 전체와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발굴조사 범위를 확정하고 사유지 약 185,000㎡를 매입하여 사역내에 자리 잡고 있던 민가를 철거하면서 발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황룡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가람의 전체 규모와 건물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사지를 정비하여 웅장했던 신라 문화의 실상을 밝히고 호국의 열을 느끼게 하는 시회교육도장으로 삼고자 시작되었으며, 1973년도부터 미추왕릉지구 고분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의 조사요원들 중 일부 인원으로 구성된 황룡사지 발굴조사팀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차년도인 1976년 3월21일 개편된 지도위원과 조사위원 합동으로 경주고적발굴조사단 사무실에서 황룡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발굴조사는 1930년도에 일본 학자에 의해 작성된 추정 가람배치도와 현황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3년 정도면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3개년계획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발굴조사의 범위는 사역내의 주건물지 뿐만 아니라 부속건물지와 주변 시설까지 조사하여 황룡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역 북편과 분황사와의 연결지역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하고 1976년 4월 20일부터 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2차년도(1977년)에는 발굴조사를 위해 민가 철거 작업과 정리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3월 10일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금당동편건물지(동금당지), 중문지, 목탑지 남편의 동서건물지(추정 종루지와 경루지), 강당서편건물지, 서회랑

지와 남회랑지 유구 일부와 사역 북쪽의 담장지 일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2차년도 조사 결과 조사가 진행 중인 회랑 내곽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넓게 확대되고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금당지의 동서편건물지와 강당지의 동서편건물지 등 4개소의 대형 건물지가 확인됨에 따라 당초 1년으로 계획되었던 회랑 내곽에 대한 조사가 기간내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초 약 40,000평 정도로 예상하였던 발굴 범위도 회랑 내곽의 확대에 따라 전체 사역도 예상보다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발굴 범위도 약 60,000평 정도로 확장되어야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2월 3일 발굴현장 사무실에서 지도위원과 조사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2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와 특이한 가람배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완벽한 학술조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발굴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2년간 더 연장하여 발굴조사를 계속하도록 결정하였다.

3차년도(1978년)는 발굴조사 계획이 3개년계획에서 5개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1월 27일 발굴현장 사무실에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목탑지에 대한 세부적인 2차조사와 더불어 전년도까지 1차조사가 실시된 회랑 내곽의 단위건물지에 대한 세부적인 2차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목탑지에 대한 2차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토층조사 중 심초석 하부에서 청동제 팔찌와 그릇 등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유물들은 심초석을 안치하기 이전에 매납하였던 진단구로 판단되었고, 더 많은 유물이 심초석 하부에 매납 되어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단 유물 노출작업을 중단하고 5월 28일 조사단장 주체로 지도위원과 조사위원을 모시고 대책을 협의하였다. 회의 결과 관계 지도위원의 현장 지도하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심초석의 무게가 30톤가량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하며,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시 원래의 위치로 옮기기로 결정하였

다. 따라서 3차년도 발굴조사계획에 추가하여 별도의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7월 4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7월 28일에 포항종합제철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10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심초석을 안전하게 들어 옮긴 후 심초석 하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9월 9일 심초석을 원래의 위치에 옮겨 놓았다. 3차년도 조사를 통해서 사역 외곽 경계인 담장 규모가 확인됨에 따라 황룡사지 사역 규모가 동서 288m, 남북 281m로 80,928㎡(약 24,480평)의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차년도(1979년) 발굴조사는 1월 10일부터 착수하여 전년도에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정리 작업과 아울러 단위건물지의 기단 구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토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회랑지 서편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속건물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특히, 발굴조사 착수 전인 1월 4일에는 박정희대통령께서 발굴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을 둘러보고 황룡사지 발굴조사 완료 후에는 신라시대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담장을 고찰하여 쌓고, 사역 내부의 유구들은 그대로 보존하고 가람배치 상상도를 비치하도록 고려하고, 9층목탑을 복원하는 것도 좋으나 콘크리트로 복원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박대통령의 현장 방문시 지시한 현재의 분황사 정문과 매표소를 새로 짓기 위해 외삼문지에 대한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6월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던 중 현재 조사 중인 복랑 형태의 회랑지 내곽에서 규모가 작은 단랑 형태의 회랑지가 확인되었고, 이와 연결되는 앞서는 시기의 중문지가 확인되었다. 이 창건가람의 중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었고 남회랑지는 남북 1칸의 단랑으로 중문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각 17칸이 확인되었는데 동서회랑지의 남단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되어 동서 승방지의 남단에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회랑지와 서회랑지도 남회랑지와 같은 단랑으로 남북으로 각각 33칸이 확인되었고 동서

회랑지의 남단은 중문지 좌우의 남회랑지 5번째칸에 연결되고 있었다. 동서 승방지는 서로 대칭이 되도록 배치되었는데, 중앙카이 넓은 동서 3칸으로 남북으로 각각 21칸 규모로 확인되었다.

강당지 좌우의 하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추정 복승방지는 동서승방지의 전체 폭에 맞추어 동서로 길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기단의 축조수법은 한번 8.5m의 □자형태로 구덩이를 파고 냇돌과 점토를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기초유구는 12개소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강당지의 하부가 교란이 심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정밀조시 과정에서 밝혀진 유구들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삼금당과 목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람보다 앞서는 시기의 가람이 존재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이는 553년에 창건하여 16년만인 569년에 주위에 담장을 두르고 완성하였다는 창건가람의 유구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7월 20일에는 발굴현장에서 지도위원과 조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창건가람 유구의 조사와 관련하여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창건가람의 전모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회랑 외곽지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발굴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우선 현재의 발굴조사 기간에 3년을 더 연장하여 1983년도에 조사를 완료하는 황룡사지 발굴조사 8개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다.

5차년도(1980년)부터는 강당지의 동편과 서편건물지의 2차조사와 토층조사를 실시하였고, 강당지 북편 부속건물지의 배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16개소의 크고 작은 건물지들을 확인하였으며, 동회랑지 외곽으로 노출되고 있는 부속건물지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중건가람 회랑지에 대한 토층조사와 금당지 남쪽에서 노출된 고려시대의 석등지도 조사하였고, 아울러 황룡사지 사역 북편과 분황사 사이 지역에 대한 지하유구 탐색조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어서 6차년도(1981년)에는

강당지의 북편과 북서편 및 북동편에서 확인된 다수의 부속건물지에 대한 세부조사와 동회랑지 동편과 사역 동쪽 담장 사이 지역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속건물지에 대한 세부조사에 주력하였으며, 사역 북편 담장과 분향사 사이 공간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5월 16일에는 현장에서 지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발굴조사 진행상황과 황룡사지 중심곽의 정비공사와 관련한 회의를 하였다. 회랑 내곽의 미발굴 지역에 정비공사가 실시되면서 유구 잔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회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목탑지 서편에서 대형의 폐와무지가 확인되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목탑지와 중문지 사이에서는 가람 중심축선상에서 방형의 석조유구가 정비공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황룡사지 사역내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7차년도(1982년)와 8차년도(1983년)에는 그동안 완료하지 못한 노출 유구에 대한 정밀조사와 남문지의 주변의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 사역 외곽지역에 대한 탐색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1차조사가 이루어진 건물지 및 부속유구와 동회랑지와 서회랑지 외곽에 대한 정밀조사와 사역 정비를 위하여 매입한 황룡사지 서편 담장 외곽 지역에 대한 탐색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보충조사 결과 황룡사지 사역내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나 서회랑지 외곽의 일부 지역은 발굴조사단이 그동안 사용했던 가설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이 지역은 당분간 황룡사지 발굴 자료와 유물정리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우선 회랑 내곽의 발굴조사에 대한 1차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수습유물의 분류와 도면 작성 등 보고서 발간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황룡사지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출토유물의 정리와 발굴 유구에 대한 도면 작성을 마치고 1984년 12월에 황룡사지 내곽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1984년도부터는 황룡사지 외곽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985년도까지 계속된 외곽지역 발굴조사에서는 사역 서남편 지역에서 통일 신라시대 사지를 확인하고 이듬해인 1986년부터 전면발굴조사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사역 서남편 외곽지역에서는 신라시대 도로유구를 비롯하여 집 수시설과 건물지 등 신라 왕경 관련 유구들이 확인되기 시작되면서 황룡사지 외곽지역의 신라 왕경유적 발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1987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8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굴조사를 통하여 사역 내부와 외곽 지역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 결과 황룡사는 중문-탑-금당-강당이 남북으로 배치된 일탑식가람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3개의 금당이 동-서로 병열된 일탑삼금당식의 특수한 형식임이 밝혀졌다. 특히 층위조사 과정에서 사찰은 늪지를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층위의 변화 양상에서 4차례에 걸친 축조과정이 확인되었으며, 각 층위별 유구와 문헌기록과의 대비를 통하여 초축, 중건, 폐사 과정과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창건에서부터 병화로 소실될 때까지 가람의 변화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담보상태에 있던 고대가람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고대 사찰과 관련된 40,000여점이 넘는 각종 유물들이 수습되어 신라사 연구를 위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2. 불교고학의 전망

황룡사지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는 7차년도인 1982년에 우선 회랑 내곽의 발굴조사에 대한 1차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기로 결정하고 수습유물의 분류와 도면 작성 등 보고서 발간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1984년 12월에 발간하였다.

발굴조사보고서는 본문편과 도판편의 2책으로 발간하였으며 본문에는 먼저 황룡사 창건과 소실로 인해 폐사되기까지의 과정을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발굴조사 경위와 과정을 연차별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발굴조사 유구를 금당지, 목탑지, 동금당지, 서금당지, 종루지, 경루지, 강당지와 동서편 건물지, 중문지와 회랑지의 중요 건물지별로 나누어 발굴전 현황과 토층조사, 평면형식, 기단의 구조에 대한 조사 내용을 기술하고 각 건물지 주칸의 규모와 사용척에 대한 고찰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토 유물에 대한 출토상태와 해설을 와전류와 토기와 자기 등 용기류, 그리고 불상과 청동제품, 철제품 등 금속유물과 옥제품, 석제품, 토제품 등 기타유물로 분류하여 실측도면과 함께 실었다. 그리고 서금당지 기단도에서 출토된 진단구를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생활용구와 장식구, 장신구로 나누어 실었으며 목탑지의 심초석하부에서 출토된 진단구도 별도의 장을 두어 조사경위와 경과, 심초석하부의 구조와 토층조사 내용 등과 함께 진단구의 출토상태와 수습 유물에 대한 해설을 도면과 함께 자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또한 도굴되었다가 회수된 목탑지 심초석의 사리구는 수습 경위와 금동외함에 새겨져 있는 찰주본기 명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수습된 사리구를 종류별로 나누어 유물 해설과 도면을 함께 수록하였으며, 말미에 별도의 장을 두어 황룡사의 가람 변천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황룡사지의 발굴조사보고서는 사역 중심파, 즉 회랑 내곽에 대한 조사 내용에 한정하여 발간되었지만 사역내의 중요 건물지나 가람 구조에 대한 일차적인 내용은 충실하게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회랑 외곽의 많은 건물지와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역 전체를 놓고 볼 때 회랑내곽이 신앙공간이라면 외곽은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다. 회랑 안에 배치된 삼금당은 불전의 역할, 강당은 설법을 통한 수행도량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며, 목탑은 국민들의 불교 신앙의 대상과 함께 신라 수도의 위엄을 상징하는 기념물의 역할도 했을 것이

다. 이와 같이 중심축이 불역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면 회랑 외곽의 건물지들과 부대시설들은 거주했던 승려들의 생활공간으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발굴조사 과정에서도 승려들이 생활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승방지와 창고, 수조, 우물 등의 생활과 관련된 시설들과 많은 생활용기와 도구들이 확인된바 있고, 공방시설과 기와가마 같은 생산시설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외곽의 생활공간은 황룡사에 주거했던 많은 승려들과 신도들의 생활문화와 더불어 황룡사에 종사했던 장인들의 생산 활동을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그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향후 발간될 후속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고고학적인 성과와 함께 불교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황룡사 창건과 더불어 월성과 황룡사를 중심으로 신라 왕경에 대대적인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198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신라왕경유적 발굴조사를 통하여 그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성과는 신라 왕경의 구조와 변천과정은 물론 황룡사 주변의 다른 사찰과의 연관관계나 상호 기능, 신라 왕경에 있어서 불교 신앙의 양상과 추이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발굴조사 범위의 확대에 따라 황룡사지 남편에 분명하게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황룡사로의 진입시설과 구조, 황룡사지 주변의 대단위와 소단위의 토지구획과 민가 구조, 생산시설 등도 함께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고대 사지의 발굴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축적된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 관련 학자들이 종종 지적한 하고 있듯이 현재까지의 불교고고학 연구가 일제강점기 이후, 문헌사학과 건축학 또는 미술사학의 전유물로써 발굴 조사되거나 연구되는 행태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대 사지의 발굴과 연구는 일제강점기 이후 주로 건축사와 미술사학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불교사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나 사찰에서의

승려와 신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최근에 불교고고학 본래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고고학·미술사학·건축사학·문헌사학 등 제분야가 상호 융합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전된 연구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